“국민의힘, 부동산조사 동의서 내야…이준석이 확인하라”

# 대야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

### 송영길 “국민상대 이런 정치 안돼”
### 김영배 “대국민 사기극·감사쇼”
### 최고위 회의서 전수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제대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야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에 가족과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즉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비례대표 두 분을 제명 조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의 문제였고, 본인의 문제도 아니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질타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매우 쉽다. 서류 한 장에 가족 주민번호를 적고, 간단한 양식에 동의 체크만 하면 된다”라며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조사는 정치권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이자 실천”이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쇄신도 혁신도 아니다”라며 “이준석 대표가 자당 조사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민 기만 가짜 감사쇼”라며 “이준석 대표에게 배현진 원내대변인의 말을 돌려드린다. ‘말장난과 거짓말, 유체이탈은 이제 그만하고 당당하게 검증대에 올라서자’ ”라고 비꼬았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저희는 가족 같은 의원들을 출당시켰다. 공직자가 청렴도에 얼마나 앞장서야 하는지 보이기 위해 제 살 깎기를 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요동치는 야권 대선구도

### ‘윤석열 X파일’ 논란 악재에
### 유승민 뜨고 최재형 합류 가능

야권의 대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장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범야권 주자들이 추격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윤석열 X파일’의 파장이 범야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캠프대변인 사퇴와 ‘X파일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지자 곧바로 후발주자들이 치고 나선 모양새다.

당장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율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대권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8%·신뢰수준±3.1%포인트)에서 유 전 의원 지지율은 14.4%를 기록했다. 야권 주자로서는 윤 전 총장에 이은 2위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최고 지지율이다. ‘이준석 효과’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일(7월 12일)에 맞춰 발 빠르게 바람몰이에 나설 태세다.

현직인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세도 눈에 띈다.

최 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권 의사를 밝히기는커녕 정계 입문조차 하지 않은 ‘예비신인’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선전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내달 중으로 사퇴 후 출마선언을 하면서 상대적 약점으로 꼽히는 인지도 높이기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정치권을 기반으로 세몰이를 본격화했다. 전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정책자문그룹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는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다음 달에는 대선 비전을 정리한 대담집을 펴내는 한편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는 지지모임인 ’희망오름‘도 발족 예정이다. 홍준표 의원 역시 국민의힘 복당안이 이르면 24일 최고위에서 의결되면, 홍 의원은 곧바로 당내 경선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민주당 “양향자 사무소 성추문 의혹 철저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양향자(광주 서구을)의원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최대한의 엄중하고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해당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고, 16일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에게 시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광주시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변인은 “성범죄 특성상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조사내용에 대한 과도한 노출을 삼가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격리, 관련자 직무배제, 지역사무실 폐쇄, 중앙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상담 등 후속조치가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와 함께 진행 중인 당 차원 가해자 조사를 병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당 차원에서도 엄중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 선명해지는 反이재명 연대…‘후유증 어쩌나’ 이재명계 고심

### 이낙연·정세균, 경선연기 공동대응하며 연대 움직임
### 이재명측 “선두주자니 견제…결국 본선경쟁력이 초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앞두고 ‘반(反)이재명 연대’가 구축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23일 오전 인터넷 언론사 창간 기념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해 축사했다. 주최 측 초청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주자가 일주일 사이에 세 차례나 한자리에 모이면서 향후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17일 정 전 총리 출마 선언식에 함께 했고, 전날 공동 정책토론회에도 같이 나왔던 터다. 당사자들은 정치적 연대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참석 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임에도 가지 않느냐”고 반문했고, 정 전 총리는 “우연이다.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세력 간 합종연횡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책 부분을 같이 가는 정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경선 일정을 놓고 합종연횡을 통한 세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측근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의원총회 개최나 당무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 측은 경선 일정을 놓고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 지사에 대한 친문 일각의 반감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일찌감치 경선을 하고 ‘원팀’을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지사 측 핵심 측근 의원은 “11월까지 당내 경선에서 계속 서로를 공격하고 싸우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화학적 결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조정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선두주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중 견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은 누가 민주당 후보로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가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5일 대선 경선기획단으로부터 일정 기획안을 보고받고 각 캠프 대리인과 함께 협의한 뒤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 “저는 일관되게 (경선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주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혀 현행 일정 유지에 다시 한번 무게를 실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 이병훈 ‘포털 뉴스 공급, 아웃링크 변경’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3일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뉴스 공급 방식을 인링크(In-link)에서 아웃링크(Out-link)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다음) 등 포털사업자는 이용자가 뉴스기사 등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 내에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인링크 방식은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의 폐해로 인해 대중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기며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카카오는 기사 제공 댓가로 언론사에 전재료를 지급해 왔으며, 네이버의 경우 2019년 전재료를 전면 폐지하고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언론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재료 방식이나 광고수익 배분 방식 모두 포털사이트 내에서의 언론사 간 조회수 경쟁을 유발하고 언론사를 포털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 기사 등을 제공할 경우 그 기사를 작성·생산한 언론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 방식을 전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포털이 인터넷 접속을 위한 관문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유통하는 독점의 관문으로 변질되어 국민과 언론을 길들이고 있다”며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해당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포털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부동산 직거래** [토지·건물·임야 매매·임대]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9,190㎡, 느티나무15년생 105주외 7종(소나무, 백일홍, 목련, 벗나무, 함박꽃나무, 산수유, 은행나무) 총 1,810주 광주간 25분, 신설국도4차선 근접, 전원주택, 펜션, 물치장, 다목적 사용가, 조경수 포함 ㎡ 8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통로 사거리코너 점포8간, 대238㎡ 연257.8㎡ 주변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중 문화전당 연계 집중개발 투자 최상 매9억9천만원 보1천6백 월2백만원 상업지역
2) **광주. 북. 오치동.** 4층 대384㎡ 연998㎡ 사거리코너 요지 1층 점포6간 매16억 5천만원 보2억 월6백6십만원

**3 전원주택, 가든, 펜션 용지**

1)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70m접 계획관리지역 전·답 4,363㎡ 덕진산자락 남향 경관수려 ㎡14만원
2) **화순 북면 옥리.** 금포온천 정문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531㎡ 매㎡18만원

**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용지(주거2종)** 분할 가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도로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시장 근접, 교통요지 답4,220㎡(1,276평) 매㎡ 7십만 ※분할매매가

**5 임야(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등 포함 7만6천㎡ 광주간45분 4차선국도근접 완도간 고속도로 2023년 완공시 영암 I.C 300m 지점 이용, 광주간25분 소요, 마을변방 편백 휴양림 1만주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대형차 출입가 귀촌자 최상 ㎡당 6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20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5,810㎡(전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적합 매㎡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한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적지 현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2만원 급매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재배, 캠프장, 농가주택가 ㎡5천원 급매

**6 건축물 임대(상가, 투룸)**

1) **사무실용 기타(현 마트)**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근접, 4차선 대로변 7층건물 중 1층 135㎡ 내부깨끗 대형주차장(부설·창고·화장실) 보증금2천만원 월110만원
2) **광주. 동. 대인시장 내 점포** 야시장 주통로, 사거리코너 11㎡(약3평) 전시장, 먹거리, 건어물 기타 다목적 사용가, 보3백 월30만원
3) **투룸임대** 광주. 서. 농성동 돌고개역 양동시장 근접 3층 52㎡ 풀옵션 정남향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대형주차장 보2백만원 월30만원 즉시 입주가

※ 부동산 직거래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88-8 **H. 010-3612-9262**

**상가 매매**(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융 4억)

2) 월수익 300만, (보 4천) 임대완료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가능

(즉시 업무가능,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6M 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8660-9801